

# 우리 아이

# 키워주기

이주학습능력 개발연구실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암기하고 있을까요? '엄마, 난 머리가 나쁜가 봐'라고 호소하는 아이에게 효과적인 기억법으로 학습을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자신을 탓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제 지능이 나쁘기 보다는 학습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억력은 타고 났다가 보다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기 보다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을 구별하여 머릿 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꾸 잊어 버리는 원인 찾기

### 》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외우기

시간은 부족하고 공부할 분량이 많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무조건 외우고 보자는 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없이 머리 속에 들어간 내용들은 기억도 잘 안될 뿐더러 망각이 빠르게 진행

되어 잊어 버리게 됩니다.

### 》 뒤죽박죽 순서없이 암기하기

기억저장고에 많은 분량을 아무런 체계없이 마구 쑤셔 넣으면 내용들이 서로 뒤섞여서 기억하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 》 한번 기억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

저장해 둔 내용을 자주 꺼내어 먼지를 털어 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잊어 버리게 됩니다. 한번 기억한 내용이라도 다시 떠올려서 반복하면 훨씬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연관시켜 기억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기억력 키우기 전략

### 》 기억력에 대한 자신감 갖게 해 주기

'난 머리가 나빠' '암기해도 곧 잊어버릴 텐



마리가 되어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 영상화 기억법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할 때, 장면을 머릿 속에 그려 보면서 공부하면 역사적 사건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것이고 기억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을 교과서에 쓰여진 대로 평면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영상화하여 기억하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면서도 장기 기억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 결과 강의를 듣지 않아도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학습한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밝혀냈습니다. 숨씨가 좋지 못하더라도 학습내용을 그림이나 도형화시켜 가면서 공부하면 기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시청각 교재, 즉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요즘 새롭게 각광 받는 CD롬 타이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떠올려 보기

사람이 학습을 한 후, 시간이 지나면 학습한 내용은 대부분 망각되어 버립니다. 학습한 지 하루가 지나면 학습내용의 약 3분의 2는 망각이 되고 3분의 1만이 남게 되는데, 9시간이 흐르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망각률이 급속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잊어 버릴 만할 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주면 훨씬 많은 양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

데' 등 부정적인 생각은 기억하려는 자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타고 났다기 보다는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므로, 아이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성공경험을 되살려 주도록 합니다. 또한, 아이 기억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해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해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만나면 '이것쯤은 문제 없어'하는 자신감에 찬 태도로 의욕을 가지고 임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 » 완전히 이해한 후 암기하기

아이가 어려운 내용에 접했을 때,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인내심과 의지력을 갖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기억의 실